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0.10 [31~33]

(가)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복어 쪼가리 조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빛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빛은** 나오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 자무스: 자무쓰, 중국 북단의 한 지명.
* 뿔가: 러시아 서부의 볼가강.

(나)

검정 사포를 쓰고 똑딱선(船)을 내리면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松柏)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기(旗)빨처럼 다정하고
낮설은 신작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 있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약국
행이불언(行而不言) 하시는 아버지께선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헌 책력(冊曆)처럼 **애정에 낚으신 어머니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新刊)**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 유치환, 「귀고」 -

[A]

[B]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며 형상화된다.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나)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혈빛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애정에 낚으신 어머니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거리거리'와 [B]의 '신작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 ② [A]의 '이민 열차'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B]의 '뚝딱선'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의 '흐린 창'과 [B]의 '양지바른 뒷산'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의 '골짜 골짜'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이, [B]의 '하늘'에는 돌아온 이의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다.
- ⑤ [A]의 '사람들'과 [B]의 '사람'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보 기>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며 형상화된다.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나)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귀향’에 관련한 이야기가 (가)와 (나)에서 등장할 것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의 경우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유랑민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화자는 유랑민들과 자신이 저마다 불안감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의 경우,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던 유랑민들의 귀향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드러누워 별을 바라보는 유랑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드러누워 ‘한결같이’ ‘하나씩’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화자와 유랑민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두운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통해 희망을 엿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차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복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 차무스: 차무쓰, 중국 북단의 한 지명.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두만강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중국의 차무스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남도 사람들과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돌아오는 유랑민들의 사연을 들으며 내심 서울을 그리워해 고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고향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서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민을 떠날 때 열차에서 흐린 창으로 보았던 골짜 골짜를 이민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혈벗은 채 돌아오는 화자와 유랑민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쁜 일로 울지 못하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유랑민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한 ‘나라에 기쁜 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점 또한 알고 넘어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충을 안고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용악, 「하나씩의 별」-

* 빨가: 러시아 서부의 불가강.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총을 안고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이 잠이 든 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연에서 이야기했듯 지붕 위에 누워 '하나씩의' 별을 바라보는 유랑민들과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갖는 희망을 강조하며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작품 총평

유랑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화자와 유랑민들의 모습이 화자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을 시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참조해 귀향하는 유랑민들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품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검정 사포를 쓰고 똑딱선(船)을 내리면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松柏)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기(旗)빨처럼 다정하고
낮설은 신작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 있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약국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듯 고향으로 귀향하는 화자가 떠올리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을 정도로 변화한 곳이었음을 회상한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보며 하늘이 '기빨처럼 다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선 신작로를 돌아가니 자신이 크던 돌다리위와 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이 드러납니다. 화자가 '그 길을 찾아가면 / 우리 집은 유약국'이라고 하는 점을 통해 집으로 가면서 과거 고향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이불언(行而不言) 하시는 아버지께선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현 책력(冊曆)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니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新刊)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 유치환, 「귀고」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행이불언', 즉 과묵한 아버지는 어느덧 돋보기를 쓰고 절을 받습니다. 이는 화자가 고향을 떠난 사이 나이가 들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현 책력'과 같이 애정에 낡은 어머니 또한 나이가 들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님의 곁에서 자신은 끼고 온 신문을 유년 시절에 보던 그림책인 것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화자가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 어린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화자는 어느덧 바뀐 마을과 나이가 들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가)의 경우 '하나씩의 별'과 같이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대화체와 독백체의 교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와 (나) 모두 독백체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수미 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가)의 경우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의 수미 상관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수미 상관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가)의 경우 '검은 문', '푸르른 바다'와 같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 또한 '검정 사포', '푸른 송백'과 같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⑤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험벗은 나요'에서 어조의 미미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어조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②

— <보 기> —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며 형상화된다.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나)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힘한 땅에서 힘한 변 치르고' '혈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것이겠군.

→ (가)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힘한 땅에서 힘한 변 치르고'를 통해 유랑하던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혈벗은 채 돌아'온다는 점을 통해 떠날 때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객지에서의 고단한 삶으로 변화하지 못한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판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겠군.

→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판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화자가 서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속에서 서울을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③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군.

→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 화자가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④ (나)에서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이겠군.

→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은 항구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화자에게 고향의 풍경이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⑤ (나)에서 '애정에 낚으신 어머니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 (나)에서 '애정에 낚으신 어머니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나이가 들어버린 부모님 옆에서 마치 자신의 유년시절에 보던 '그림책인 양' '신간'을 봄으로써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A]의 '거리거리'와 [B]의 '신작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 [A]의 '거리거리'에는 떠날 때도 혈벗은 상태였고 돌아올 때도 혈벗은 상태인 유랑민들의 어려운 삶을 드러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경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에는 '신작로'라는 어휘를 통해 변화한 고향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② [A]의 '이민 열차'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B]의 '뚝딱선'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하고 있다.

→ [A]의 '이민 열차'는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가던 부정적 상황을, [B]의 '뚝딱선'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향수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기대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A]의 '흐린 창'과 [B]의 '양지바른 뒷산'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A]의 '흐린 창'은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유랑민들의 부정적인 삶의 현실이, [B]의 '양지바른 뒷산'은 포근한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 모두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A]의 '골짜 골짜'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이, [B]의 '하늘'에는 돌아온 이의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다.

→ [A]의 '골짜 골짜'는 고향을 떠나던 유랑민들이 서럽게 내다보던 곳으로, 슬픔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B]의 '하늘'에는 '기빨처럼 다정하'다는 점을 통해 돌아온 이의 고향에 대한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⑤ [A]의 '사람들'과 [B]의 '사람'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 [A]의 '사람들'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B]의 '사람'은 단순히 자신이 떠올리던 유년 시절에 변화했던 선창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